

우리가 만들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감동’ : 마음을 움직이다



안타까운 민원신고

출생

47일

사망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망자	성명	한글		등록번호	-	
		한자				
	등록기준지					
	주소					
사망일시	사망일시	년		시(도)		
	사망장소	장소	시(도)			
		구분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공공시설(학교 등) <input type="checkbox"/> 산업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②기타사항						
③ 신고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input type="checkbox"/> 동거친족 <input type="checkbox"/> 비동거친족 <input type="checkbox"/> 동거자 <input type="checkbox"/>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장 등)				
	주소					
④제출인	성명				전화	
					주민등록번호	

비극적인 뉴스

서울경제

생후 47일 아들 학대 살해한 엄마... 사망 전 검색한 것은 바로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운 원석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친모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3~6일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 B군의 머리 부위에 최소 2회 이상 강한 외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7월 6일 오전 8시 38분쯤 B군의 몸이 차가워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즉시 병원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뒤늦게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5시 38분쯤 B군은 머리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 부위 손상으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가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등과 엉덩이를 5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때리며 드러났다. 당시 A씨는 6평 남짓의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들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 우울증을 겪던 A씨는 남편 C씨에게 여러 차례 "아이를 치울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다" "(아이를)없애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C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아내를 지지하거나, 이들을 분리하지 않은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C씨는 B군 몸에 학대로 인한 멍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저 상태로 (병원에)갔다간 100% 병원에 좋은 약 검색해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편의 말을 들은 A씨는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휴대전화로 '신생아 멍 없애는 약', '멍든 데 없애는 방법'을 검색한 것

A씨는 2020년 7월 3~6일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 B군의 머리 부위에 최소 2회 이상 강한 외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6평 남짓의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들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후 우울증을 겪던 A씨는 남편 C씨에게 여러 차례 "아이를 치울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다" "(아이를)없애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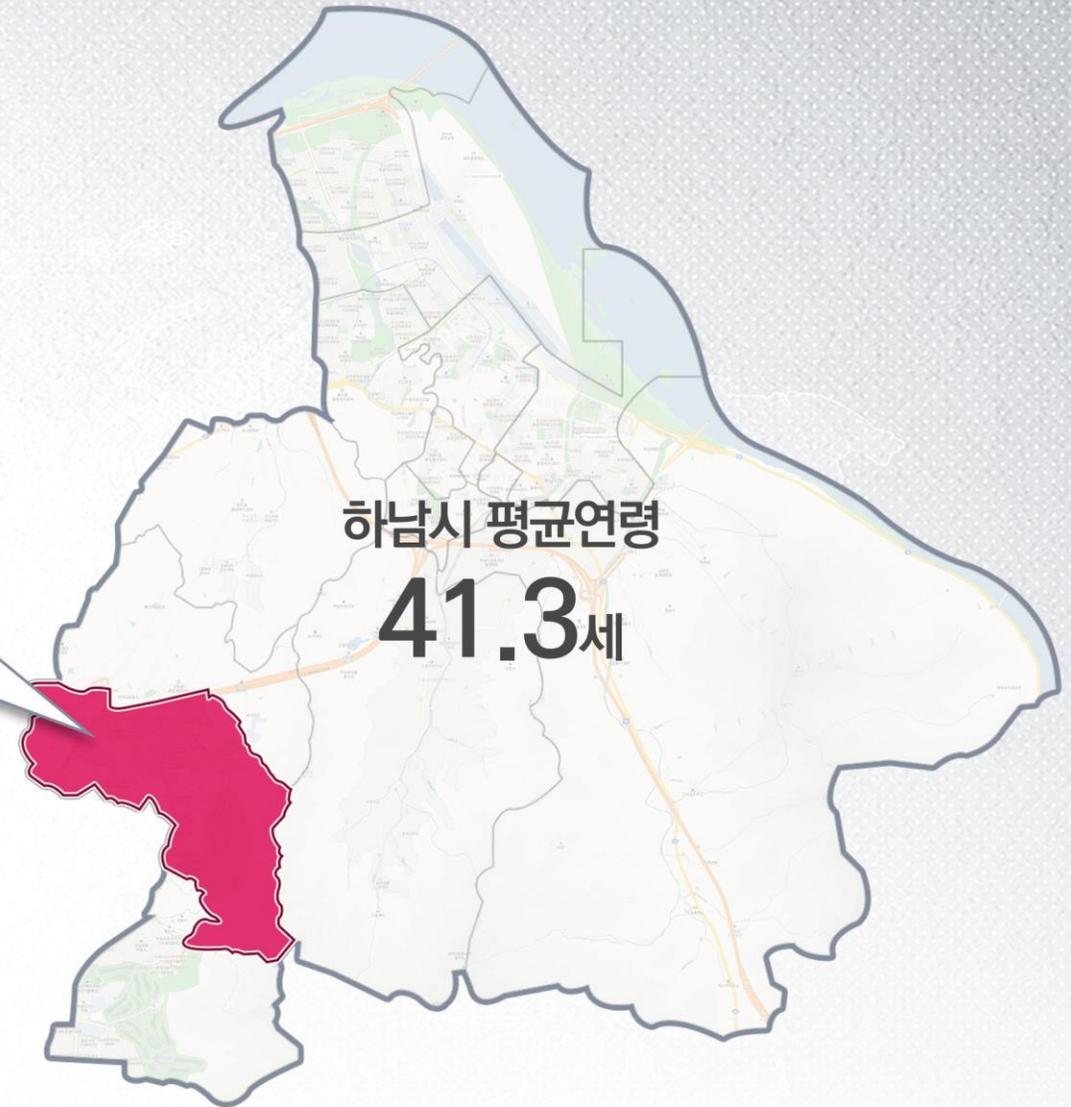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공백

젊은 도시 감일의 공백

감일동 평균연령 36.5세



감일지구의 고립



감일동행정복지센터 임시 존재



감일의 공백과 고립을 채우다

Moving

시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남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개요

국민정책디자인단
이해하기

국민요구
발견하기

진짜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발전하기

실행전략
전달하기



과제정보 공유



이해관계자 발굴



사용자모델 작성



아이디어 도출(1)



서비스컨셉 공유



이해관계자별 문제



주요대상자 선정



주요 문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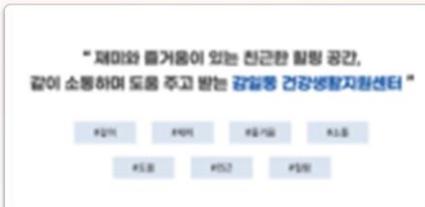
현장 관찰



프로토타이핑



사용자조사 : 설문



서비스 비전 선정



아이디어 도출(2)(3)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친구, 건강 친구, 진짜 친구

내 정신이 튼튼 해지고,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해지는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나를 위한



가족을 위한



우리를 위한

Moving
2

응답하라 1988



정책을 눈에 보이게 실현합니다



구석구석 공간 피드백부터
특화사업 공간구성까지



프로그램 방향성부터
구체적 운영방안까지



동네친구, 건강친구, 진짜친구

내 정신이 튼튼 해지고,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해지는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간 (Hardware)

1 특화사업 Zone

주인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간



공간의 구성과 운영방식

-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자치조직으로 운영
- 주민은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 참여



행정의 역할과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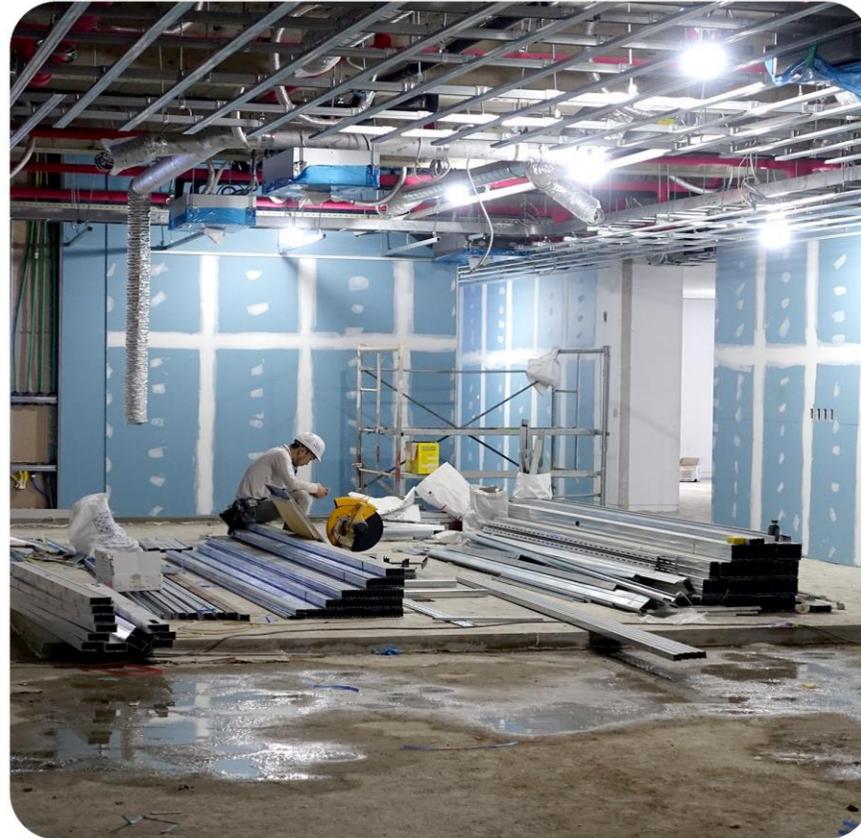
-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보조 역할 수행
- 특화공간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홍보와 네트워킹에 도움
- 주민이 원하는 전문가 기관과 연결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확립

공간 (Hardware)

2 주민활동 Zone

시민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간 (Hardware)

3 릴렉스 Zone

로비공간을 활용한 휴게 공간



공간 (Hardware)

4 상 담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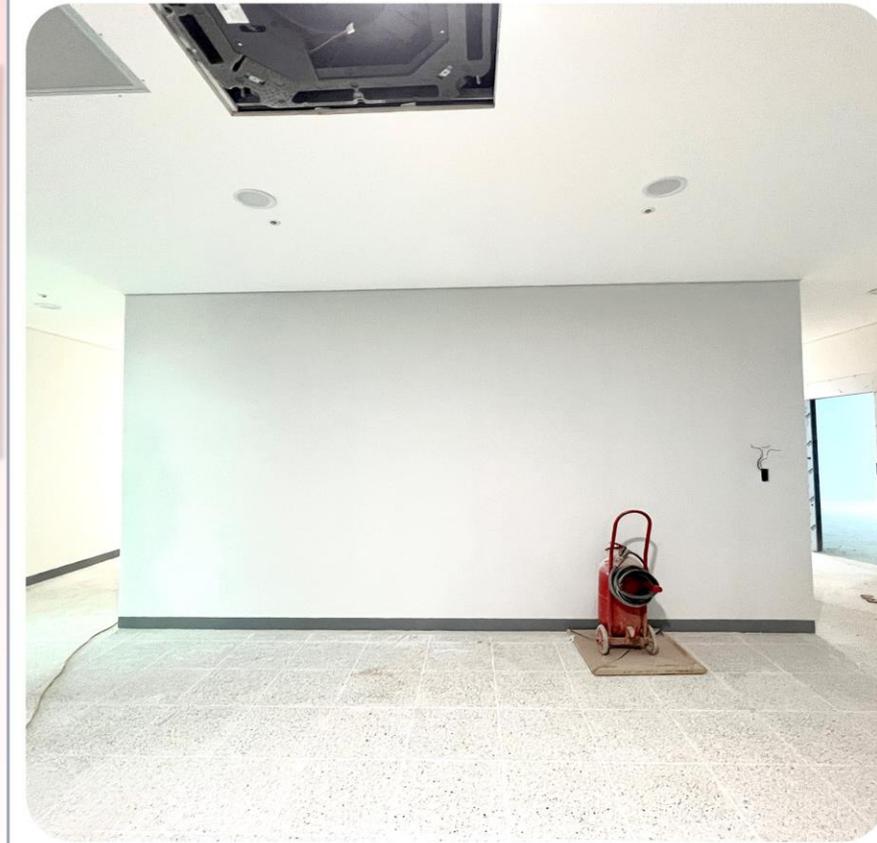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공간



공간 (Hardware)

5 유모차 파킹 Zone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편의 시설



공간 (Hardware)

6 체험/참여 Zone



건강체험교육실

신체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공간



쿠��클래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요리 프로그램



공간 (Hardware)



프로그램 (Software)

공백을 없애고 함께 삶을 채우는 공간과 정책



나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가족을 위한 참여와 소통 지원	우리를 위한 참여 지원	자녀를 위한 건강 지원	건강 취미 지원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가족 소통 프로그램	이웃 함께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 지원 프로그램	신체활동 프로그램
	가족 함께 프로그램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건강 취미 프로그램

프로그램 (Software)



나를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



우리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마음 건강 챙기는
색채 테라피



우울 극복!
마음 치유 꽃꽂이



영유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요가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



건강 동아리
결성 지원



건강 레시피
공유 사랑방

하남시 디자인단의 미래

- ✓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디자인단 아이디어 반영하여 운영
-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위한 홍보 및 예산 지원 노력
- ✓ 하남시 생활 SOC 조성시 시민참여형 정책 모델링 적용
- ✓ 디자인단 정책사업 지속적인 모니터링·확장 및 개선

추천사람들

‘지역 공공보건기관’ 이용률 해마다 감소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이용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의료기관과 지역보건기관의 진료 이용 현황

연도	전체 진료건수	민간의료기관		진료건수	점유율(%)
		진료건수	점유율(%)		
2010	736,348,633	721,264,033	97.95	15,425,000	1.98
2011	748,227,500	733,454,000	98.03	14,667,567	1.82
2012	799,044,600	783,619,600	98.07	14,353,133	1.74
2013	806,665,900	791,998,333	98.18	13,439,233	1.65
2014	823,178,700	808,825,567	98.26		
2015	814,897,733	801,458,500	98.35		

출처=의과학연구센터

국민일보

자살사망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이용률 2%도 안 돼

시민참여형 SOC 모델링 전파



기관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자살사망자는 956명 중 절반가량인 476명(49.8%)이었다. 이들의 기관 방문횟수는 모두 662건이었는데, 이중 복지부가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방문횟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도 3건밖에 없었다.

최근 연간 자살사망자 956명 중 절반가량인 476명(49.8%)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관 방문횟수는 모두 662건이었는데, 이중 복지부가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방문횟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도 3건밖에 없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망 3개월 전 도움을 받기 위해 병·의원 등

일간경기

B구 보건소 이용률 저조.. 구민 70% "가본 적 없다"

○ O시 사회조사 통계..공공의료기관 역할 무색

조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O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은 70%에 가까운 68.9%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구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1.2%에 불과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성별로는 남성 73.5%가 여성은 64.2%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이 26.5%였고 여성이 35.8%로 파악됐다. 여성보다 남성의 이용률이 10% 가까이 낮았다.

Moving

- 1 형용사 : 움직이는
- 2 형용사 : (슬픔연민으로) 가슴[마음을 뭉클하게[아프게]하는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국민디자인단의 이해



문제공유 및 브레인스토밍



건강생활지원센터 현장방문





하남시 무빙
Hanam City Moving

